

# 이제는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시대



전사아키텍처가 IT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사아키텍처 중 기업의 모든 업무를 데이터 측면에서 체계화하는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검정 시험은 데이터아키텍처 전문 능력을 평가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험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처음 실시됐다.

글 박현수 기자 사진 이해성 기자

최근 기업의 정보화 전략을 둘러싼 화두는 단연 전사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데이터의 양도 증가하기 시작, 기업의 비즈니스와 시스템의 복잡도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어디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기업의 전체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설계도와 같은 전사아키텍처가 등장했다. 근래에는 국내 대기

업 CIO의 IT 전략에 전사아키텍처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전사아키텍처란 복잡한 기업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목표와 요구를 잘 지원하기 위해 IT 인프라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전사아키텍처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와 IT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며, IT 자체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전사아키텍처의 구성요소

중 데이터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아키텍처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데이터에 연관된 모든 계층을 총망라한 체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사아키텍처 수립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는 아키텍처 도메인 중 데이터아키텍처 영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아키텍처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또한 관련 전문 자격증 제도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하

KDPC)는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 기업들의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란 효과적인 데이터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지칭한다.

DAP 자격검정 시험은 지금까지 글로벌 DB업체가 운용에 필요한 백업·복구·성능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능력 검정을 한 것과는 달리 데이터 품질관리, 모델링, 표준화 등의 능력을 검증, 기존 DB자격증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ITA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ITA 법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 또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DAP는 이러한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제 1회 DAP 자격 검정 시험에는 197명의 응시자들이 몰려, 데이터아키텍처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1회 시험은 전사아키텍처 이해,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데이터 요건 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DB설계와 이용 등 총 6개 과목에 대한 181개 문제가 출시됐다. 2회 시험은 오는 7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KDPC는 DA커뮤니티를 운영하여 데이터아키텍처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KDPC는 데이터아키텍처를 공부하는 회원들을 위해 교육, 컨퍼런스, DB설계공모대전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업계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 제도, DAP클럽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아키텍처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표〉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직무

직무	수행내용
데이터 요건 분석	목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직무에서는 데이터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검증 방법 등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 파악 및 각 구성요소의 표준화 원칙을 어떻게 수립하며, 표준을 정의하는지 이해한다. 표준이 정의되면 지속적인 품질을 위해 수행되는 사후관리 활동을 위해 본 직무에서는 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 모델링	기업 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사용자 관점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목으로 그 단계는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세부 단계를 수행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효과적이며 유연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본 직무에서는 상용화된 DBMS 기술에 종속된 내용을 배제하고 범용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이용, 데이터베이스 성능개선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I N T E R V I E W
제1회 DAP자격검정 수석합격 손태권 오토에버시스템 차장

## “DAP, 이론과 실무 능력 겸비는 필수조”



**데이터 아키텍처(Data Architecture)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회사에서 주요 프로젝트의 데이터 모델 문제 점검, 성능 진단, 개선 등 DBTA(Database Technical Assurance)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사내에서도 DB 관련 기술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 동안 다른 IT 분야와는 달리 데이터 모델링 영역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 인증제가 없었는데, 한국DB진흥센터에서 DAP(Database Architecture Professional)자격시험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됐다.

**DAP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예전에는 시스템 규모가 작아 데이터를 각 개인이 파일 단위로 보관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복잡해지고 양적인 면에서도 데이터 량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의 역할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DAP도 이제는 단순한 모델러가 아닌 전사 아키텍처를 책임지고 기획, 관리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DAP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DAP 자격시험은 데이터 모델링과 DB설계/응용 분야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모델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험서를 정독하고 레퍼런스 북을 참조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DB설계/응용 분야를 예로 들면 성능 진단 방법 등 현장 경험이 뒷받침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